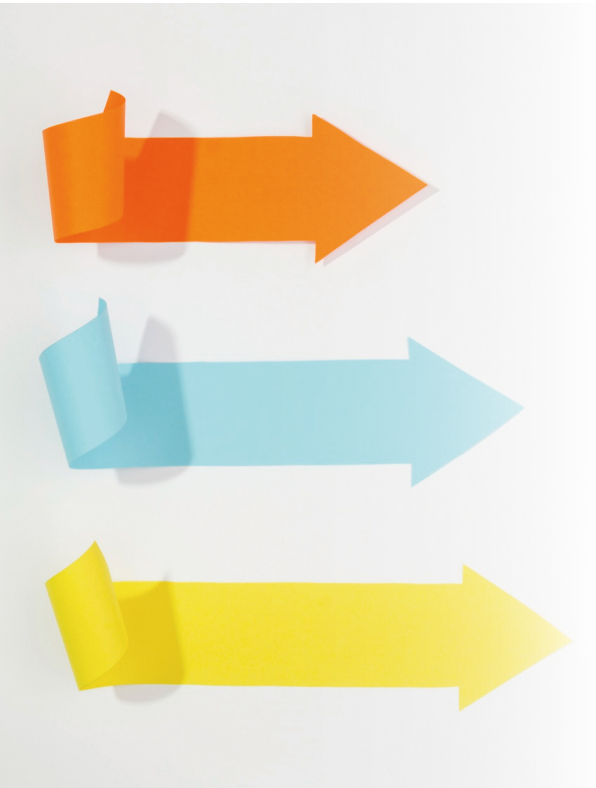




CONTENTS

우리 동네 아지트	2
핫 뉴스	3
짚다 기획 프로그램	5
- 나는야 낭만컬렉터 - 내.소.내.책 - 진북 가족 오락관 - 안 변화했어? 그 마음? - 모두를 위한 글쓰기 - 전주 시민연극제 - 먹그림&붓글씨 - 진북 나도 한가닥 - 전북예술나비, 예술로 - 우리는 동네친구 - 달토끼, 루돌프를 타다 - 평생홈런 전주Learn - 문화가 있는 날	
맏다 생활문화 동호회	29
- 나로누림/봄봄/바투/O's club/어울림 - 코스모스/쿵치타치/황산고전연구회/이수 - 소리/소리울/비녀회/쥬마렐레&우쿨로하모니	
하다 생활문화 · 예술교육	37
- 수채화/캘리그래피/프랑스자수/기타 교실 - 요가/하모니카/이모티콘 만들기/펜화	
잇다 2023 소소	43
& 센터 이모저모	47
언론 속 진북	48
진북생활문화센터 소개	51
편집위원장 후기	59

우리 동네 아지트



한천수
(진북생활문화센터 센터장) 동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의 2023년은 내실을 다지고자 좀 차분하게 지냈습니다. 이유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여파로 센터 문을 수시로 여닫아야 했던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문화 활동 등 기존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동 필요성이 내부에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 영향으로 기존 지역 공동체 기반의 문화 활동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문화 활동이 폭발적으로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생태환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고, 사회적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저출산 현상, 일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자 증가 등 제반 생활문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하여 생활문화의 범위와 센터 활

그래서 내년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는 올해 고민했던 내용을 활동으로 구체화시켜 시나브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근간이 되는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이나 문화·예술 교육강좌와 같은 회원 대상 활동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확대할 생각입니다.

먼저 교육강좌 분야에서는 기존 장르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이모티콘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강좌로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이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가능한 최대 치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호회 분야는 ‘동호회 활동하기 좋은 생활문화센터’를 표방, 기성 동호회의 센터 활동을 지원하고, 센터 내에서는 별도로 분야별 신규 동호회 결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 분야는 특성화와 공간지원, 공모사업과 네트워크 활동으로 운영됩니다. 특성화사업은 반올림 주민기획단 양성 프로그램으로 주민생활사 인터뷰와 생활문화 글쓰기 교육, 찾아가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매거진 <짓다>의 시민기자 활동 등으로 진행됩니다. 공간지원은 진북생활문화센터가 ‘우리 동네 생활문화 아지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시공간뿐 아니라 2층 사랑방과 열림방 그리고 어울림공간까지 시민들의 자율 활용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모와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일상·인문·나눔 바탕의 미시적 프로그램과 올해 고민했던 생활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역과 주민을 찾아가는 생활문화 활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생활 속에 자리한 문턱 없는 문화공간으로, 생활문화 바탕의 공동체 시민 문화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공동체에 윤기를 더하고, 생활과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이 잉태할 수 있는 생명력은, 진북생활문화센터가 지향하는 시민문화 활동의 플랫폼입니다.

“ 진북생활문화센터 Hot news in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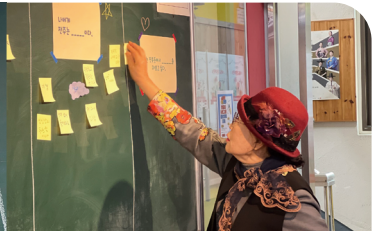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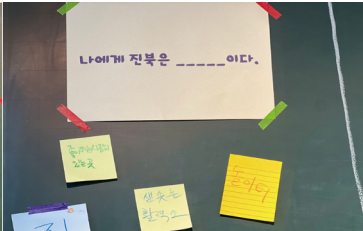
나로누림, 제2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본선 진출!
<이정희 회원, 연기상 받다!>

연극은 언제나 삶으로 통한다.
 나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지니 진심이 닿았나보다.

- 이정희 -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특성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x 예술인 x 문화기획자"가 함께 만드는 진북동 마을잔치
<진북 나도 한가닥>



매년 센터 회원들과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함께했던 마을잔치.
**코로나로 멈췄던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
짓다 | 기획 프로그램
”

2023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사업



"나는야 낭만 컬렉터"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활동가가 협업·기획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한다. 2023년에는 ‘현대미술과 더 재미있게 어울려볼 만한’ 것을 궁리하다 요즘 핫한 아트컬렉팅에 주목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함께 활동해 온 장운채 인문활동가와 의기투합하여 건강한 아트컬렉팅을 위한 공부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예술을 들여오는 낭만적인 시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이름하여 예술적 낭만을 수집하는 나는야 낭만 컬렉터의 시작이었다. 프로그램은 아트컬렉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미술을 읽고 우리 지역의 미술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커뮤니티형으로 총 30회차에 걸쳐 운영되었다.



센터가 인문향기 풀풀 풍기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처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살롱’을 생각했다. 자유로운 회합과 토론과 글쓰기의 장소이자 예술작품 전시장이며 비평이 오갔던 장소. 우리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프로그램에 꺾꺾 눌러담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반부터 후속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모임을 만들어서 종종 보자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는 내내 설렘다.

생활 속 인문 가치는 사람 사이의 촘촘한 관계망 안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한다. 센터가 인문향기 풀풀 풍기는 좋은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담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사업담당자 박진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공부의 즐거움 만끽

<나는야 낭만 컬렉터>는 아트 테크가 아닌 건강한 아트 컬렉팅을 위한 안내서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점 같은 기초 상식부터 시작해서 키아프(KIAF)와 같은 아트페어,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의 전시, 현대미술계의 흐름을 소개하고 지역 미술관과 지역 작가 탐방으로 빌드업 했는데 참여자들이 어렵지 않게 잘 따라와 주어서 즐겁게 진행했다. 누군가가 시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부는 다 즐겁다는 말을 했을 때 모두 공감하며 박장대소했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즐거운 공부의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는 사실이 크게 와 닿았다. 올해로 인문프로그램 3년차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남은 건 크게 두 가지였다. 비전공자인 참여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전공자의 틀이 깨지는 배움의 시간을 만끽했다는 것과 앞으로 미술이 대중들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공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더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졌다.

인문활동가 장윤채



“나는야 낭만컬렉터” 참여자 한마디

(김미란) 첫 탐방이 유희열 미술관이었는데 작가의 작업실이나 수장고를 본 것이 처음이어서 색다르고 특별한 날이었다.

(황은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미술사를 공부한 것이 좋았다. 미안해요 프랑켄슈타인 관람도 인상적이었는데 낯설기만 했던 미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 같다.

(김월숙) 인문과 예술의 접목이 삶에 풍요로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강사님과 블로그 친구가 되어 더 기쁘다.

(박현진) 춘포도정공장에 전시된 고 이훈기 응의 일기에 매료되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고 펜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명희) 초보자도 따라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 덕분에 전국의 미술관을 투어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고 용기내어 계획하고 있다.

(김연희) 이진욱 작가의 공방에서 본 달항아리들이 눈에 선하다. 차수를 더 많이,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박성옥) 미술에 문외한이었고 관심도 없던 내가 변했다. 내년에도 미술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함께하고 싶다.

(임대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미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확장된 것도 좋았고.

(홍정숙) 전에도 간간히 찾아봤던 미술관을 더 관심 있게 가보는 습관이 생겼다.

(정기옥) 현대미술의 흐름이나 컬렉팅에 대한 안내, 재료 탐구와 같은 전문 영역을 쉽게 설명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잠자기 전에는 관심 있는 작가 1명씩에 대한 그림을 검색하고 감상해보려고 한다.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내.소.내.책 - 내가 배운 소리로 내 동화책 만들기

2023.7.26.~11.29.

<내.소.내.책>



판소리 다섯 바탕 中 수궁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목을 따라 불러보는 소리 강의 후 자신이 이해한 수궁가의 내용을 상상력을 이용하여 나만의 수궁가 동화책으로 만든다.

예향, 소리의 도시 전주에서 전주 시민들이 전문적인 예술이라고 거리감을 느끼고 눈으로만 관람할 수밖에 없었던 판소리를 직접 배우고 따라부르고 스토리를 이해하여 자신의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지루하고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 전통의 소리를 흥미롭게 배우고 표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판소리(수궁가)를 배워보는 시간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며 동화책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읽어줄 수 있는 책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판소리를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장르와 결합을 시도한 점이 마음을 끌었어요.”



참여자 후기

<내.소.내.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리 배우기와 동화책 만들기 처음 접해보는 거라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따라부르며 때로는 신이 나기도 했고, 책을 제작했다는 보람과 의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의 격려와 지지는 용기와 편안함을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해준 진북생활문화센터에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생활에 눈을 뜨고 한발 다가간 느낌입니다.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김명희



판소리와 그림책이다? 저게 될까 싶어 참여했다.

소리와 그림을 하나로 엮어보겠다는 무모(?)한 도전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작업이 눈앞에 하나씩 쌓여갈 수록 재미도 더 해갔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물을 나누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끝까지 용기 잃지 않은 박수빈 선생님과 김보경, 최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신진철



지역문화인력 일 경험 지원 사업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이끌어갈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4명의 인력과 동거동락하며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도왔다.



‘딱지, 종이접기, 옛이야기로
온 가족이 하나 되다,’
2023.8.7.~8.28.
진북 가족 오락관

딱지, 종이접기, 옛이야기(전주 설화) 등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익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인력의 전공인 연극과 접목한
가족 단위 연극 프로그램



Round 1 전설의 딱지왕
Round 2 이종이의 일기
Round 3 전주 설화로 연극알기
Round 4 전설의 연기왕

↳ 진북가족오락관 영상으로 만나기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



“친구들! 오늘 재밌었어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진북생활문화센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딱지치기, 종이접기로 가족 간의 추억을 소통하고
전주의 옛이야기로 무대를 꾸며본다,
진북생활문화센터가 가족들의 놀이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도해본다.

진북 가족 오락관 참여자 소감



이준이네 가족 한마디!

아빠 박영준

진북가족오락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대화하며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하게되면 더 많은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할게요~

아들 박이준

전설의 딱지왕에서 딱지왕이 되어서 딱지 장식이 있는 왕관을 쓰니 너무 기분 좋았구요.
전설의 연기왕에서는 아기 역할이라 기저귀를 차고 나와서 기분이 이상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2023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in 제주

안 변화했어? 그 마음!

나로누림 강석홍

팔죽과 홍시를 좋아하셨던 장모님은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내가 홍시를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느냐 하시며.. “엄마! 우리 이렇게 몇 년만 함께 사시게.. 내가 조금 더 잘 모실게..” 아내의 그러한 말을 듣다가 입에 가져물다 떨어진 홍시 국물을 닦으시던 장모님은 침 흘리던 한쪽 입술을 쪽 내밀더니 “안 변화했어? 그 마음!”

순간 내 심장은 덜컥거리며 강한 펀치를 얻어맞은 듯, 힘없이 쪼그라지고 현기증이 일어나 바늘에 사지를 찔려 꼼짝 못 하는 그것 마냥 숨이 멎어 있었다. 조금 전 놀이터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 소리도 이미 어둠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살짝 열려 있던 창문 틈새로 마치 한여름날 불쑥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퍼붓는 무거운 저녁 공기는 방안을 어두커니 내다보고 있었다. 단풍이 지던 작년 가을이었다.

그러한 장모님은 딱 1년만인 올해 가을, 오색기가 펠렁이는 꽃마차 타고 풀잎향기 맡으며 미루나무 풀섶을 돌아 그 누구도 내다보지도 않은 조용한 산길을 따라 희미하게 아주 외로운 모습으로 마가목 열매같은 붉은 울음을 토해내며 산새처럼 내 곁을 떠나갔다.

‘안 변화했어? 그 마음!’은 이러한 장모님의 배경으로 탄생한 무대이다.

연극이란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보단 작가의 입장을 충실하게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배우는 작품을 더 상세하고 자세히 이해할 때 완벽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연극은 공감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고된 노력의 연속이다. 주어진 배역은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철저한 분석과 행동으로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어야만 자신만의 성취감이 완성되며 관객 전체를 무대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연극의 공통된 모든 요소는 소통이다. 그 소통의 언저리와 중심 속에 나로누림은 존재한다. 힘겹고 어려운 일상의 연속 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나로누림 동호회는 서로에게 조금 더 힘이 되어 주고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하리라 본다.

그리고 갈채 받는 무대의 중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연극 연습시 자주 들었던 음악

*Pink Floyd – The Great Gig in the Sky.

*Jevetta Steele – Calling You.

*NELL – Slip Away . 정야. 섬.



제 7 회 전주시 인문주간 인문강연

모두를 위한 글쓰기

“사실,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다 배우진 않는다.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글을 쓰고 싶다는 내적 동기, 그것 하나 만으로도 글쓰기를 배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장해림 작가의 강연 노트 중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인문특강은 글쓰기가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글	쓰	기	란		무	엇	일	까	?										
글	쓰	기	를		잘	하	려	면		어	떻	게		해	야		할	까	?
왜		해	야		할	까	?												
책	은		왜		읽	어	야		할	까	?								
왜		글	쓰	기	를		배	워	야		할	까	?	?	?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보통의 질문에 대해 장해림 작가는 기꺼이 개인적인 경험담을 풀어내며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어갔다. 더해서 글쓰기 여정에서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분간 초점화된 프리라이팅(free Writing)과 습작을 위한 나의 글쓰기 성향 테스트를 해 보기도 했다. 참여자들이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학생부터 프리랜서, 주부, 시인, 퇴직 공무원 등등 살아가는 이력이 모두 다르니 모아지는 이야기도 각양각색. 모두 글을 쓰고 싶은 이유도, 좋아하는 장르도, 완성하고 싶은 글도, 관심사도 제 각각이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소리 내어 말하고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날 서로 이야기 나누었던 '내가 쓰고 싶은 글' 쓰고 계시죠? 꼭 완성해가시길 응원합니다!!

2023 전주시 생문동 활성화

전주 시민 연극제



조은희 허영순 박영국 김선홍
이수완 김혜원 허승주
서미영 서정진
홍지은 이상은
임창영 황미진
이재혁 이정희 모소영 조유정
전민주 김희자 김동주
최기순 정아리

먹그림&붓글씨 체험 프로그램

생활문화로 번지는 묵향 in 진북

먹그림&붓글씨 프로그램



우리가 함께 붓으로 물들인 것은 종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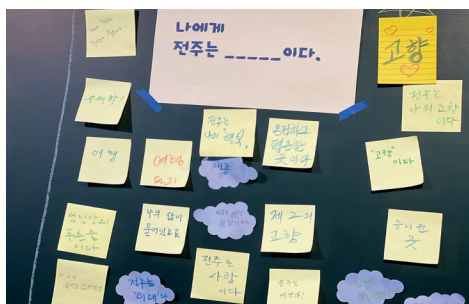


특성화사업

생활문화센터 X 지역예술인 X 청년문화기획자 가 함께 만드는 진북동 마을잔치
협력형 축제 제작 프로젝트 <진북 나도 한가닥>



모두가 함께 했기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청년문화기획자들의 이야기



'진북 나도 한가닥'을 같이 진행하며 기대보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센터분들, 예술가분들 그리고 다른 문화기획자분들의 협동으로 참여자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보람있었습니다. 이번 인연을 앞으로 잘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제임스

"진북 나도 한가닥"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장기자랑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셔도 평온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곳곳하게 동작을 이어나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열정과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활동가나 기획자로서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 기획자들은 자주 만났지만 예술인과의 만남이 적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새로운 예술인분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전시에도 가보며, 지역에서 예술인으로도 성장하고 싶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윤혜정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축제를 만들어 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다양한 예술인과 같이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과정도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역에서 사는 이유와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묻는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이곳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이야기와 고향이라서 이곳이 좋다는 글을 보고 뭉클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행복을 못 찾았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밤

시설&예술인 매칭 프로젝트 전북예술나비



리더예술인 김빛난

“진북은 나의 희망이다”

<진북 나도 한가닥> 축제에 참여한 분의 소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와 예술을 짓는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울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 또한 예술 작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이고 지고 나아갈 수 있음에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쫄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서는 핵개인의 시대에 반대로 함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 지역예술인, 청년문화기획자입니다. 목표와 취향이 다른 다수의 인원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집합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술’로 그것을 해냅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몸과 마음의 거리를 허물고 축제로 하나 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연극(play)처럼 느껴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준 협업이었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든든한 선배 리더로써 앞에서 이끌어주신 김원 작가님, 젊은 예술가의 시선으로 늘 열정을 불어 넣어주신 김종현 작가님, 예리한 시선과 깊이 있는 성찰로 아이디어를 주신 이가립 작가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감성으로 아울러주신 이혜지 작가님이 함께 계셨기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던 리더 김빛난입니다. ‘긍정’이 최상위 강점이라 체계적이지 못한 저의 빈 곳을 너그러움으로 채워주신 진북생활문화센터와 청년 문화 기획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술인 김 원

2022, 2023년 예술로 사업을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나도? 한가닥! 마을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북생활문화센터, 예술로 팀, 청년문화기획자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느낀 점은 센터의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과 생활 동호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로 함께 참여해 주신 진북생활문화센터 선생님, 예술로 협업 작가님과 청년문화기획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술로 참여예술인 소감



예술인 이해지

연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구축해 놓은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기위한 노력들이 고스란히 비춰졌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센터 직원분들의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시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_예술로는 올해 신규 예술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하고 어색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든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가 생활 문화인들의 예술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곳이어서 예술로 채워진 공간이라 어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진북생활문화센터와 함께하며 느낀 점은 동호회, 지역민들과 가족처럼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랄것도 없이 센터를 내집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예의바르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진행된 <진북, 나도 한가닥> 마을 축제에서도 역시 주민들은 가족같은 자연스러움과 함께 친근하고 질서정



예술인 이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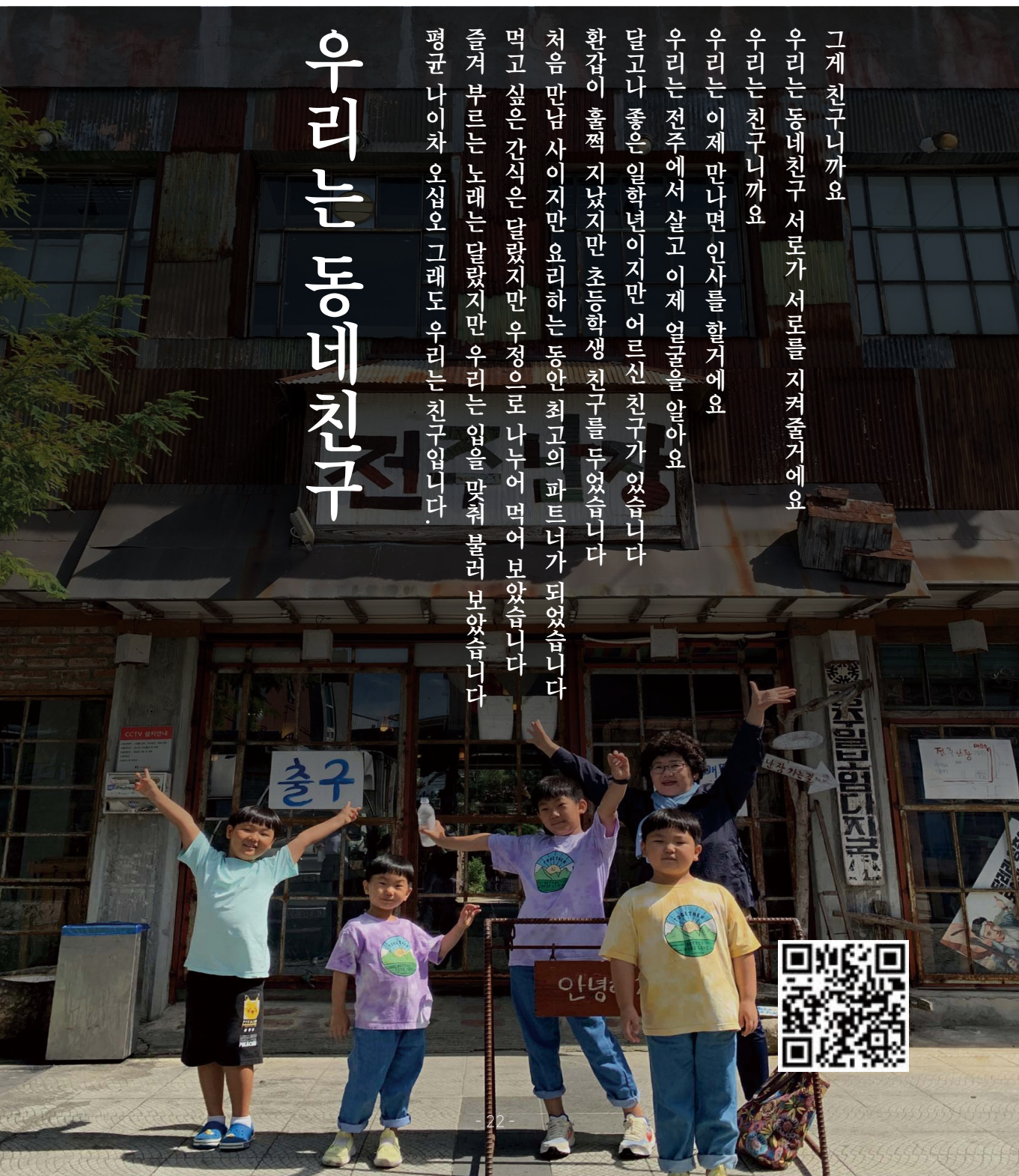
예술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던거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었던 짧은 여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북 식구들 항상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놀이 반상회

우리는 동네 친구

그게 친구니까요
우리는 동네 친구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거예요
우리는 친구니까요
우리는 이제 만나면 인사를 할거예요
우리는 전주에서 살고 이제 얼굴을 알아요
달고나 좋은 일학년이지만 어르신 친구가 있습니다
환갑이 훌쩍 지났지만 초등학교 친구를 두었습니다
처음 만남 사이지만 요리하는 동안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간식은 달랐지만 우정으로 나누어 먹어 보았습니다
즐거 부르는 노래는 달랐지만 우리는 입을 맞춰 불러 보았습니다
평균 나이차 오십오 그래도 우리는 친구입니다.





세대간 짝꿍매칭 프로젝트 <우리는 동네친구>



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석맞이 마음 나눔 프로젝트
<달토끼, 루돌프를 타다.>



달토끼들 집합!!
다들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9월 7일 업무협약 진북생활문화센터

출발!!!!

9월 16일_아중요양병원



9월 18일 코리아복지센터



9월 21일 송천효드림복지센터



4개 동호회, 1개 시설, 2개 단체 참여
3개 시설 약 300명의 어르신 방문 및 공연과 물품 나눔

내년에는 어린이날 맞이 지역아동센터로 간다! 알겠나!!

제 17 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평생홈런 전주Learn”

캘리그래피 기법을 활용한 체험 부스 진행
<붓글씨&먹그림 부채만들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어요”



그 결과 너무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나만의 부채 완성!!

진북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동호회 "동아리 열전"

6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아름답고 우아한 전통춤 채선무와 태평가



전북도청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는 올해도 전북도청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 수요층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로 전라북도의 각 시군을 찾아가 문화 활동 지원 및 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2023년에는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등 3개 시군의 사회시설을 찾아 판소리, 농악, 어쿠스틱 밴드, 댄스, 퓨전국악, 전통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가 진행 및 예정되어 있다.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
맷다 | 생활문화 동호회
”

□ 나로누림(생활연극)

행복만땅 나로누림의 대사로 전하는 응원메시지



자식들? 다 그런 것이지 뭐,,
그러도 내 자식아닌가
내가 이해 해야지~



자네만 힘든가,, 모다들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지,,
그래도 살다보든 좋은 날 있지 않
것어. 안그려?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분인데,,
자식들 잘되기만 바라고 살아왔을
분인데,, 내가 잘못된건가?



엄니. 나 기억해?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지. 항상 웃게 해줄게. 알것지?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물어봐주라.
자식이라면 그래야하는거 아니냐?



이 엄니는 괜찮아. 우리
자식들만 건강하든 나는 괜찮아.
다들 잘 지내지? 그럼 되었어.

걱정말아요 그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우리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러니 앞으로 더 행복할거예요. 걱정말아요 그대.

From. 나로누림.

□ 봄봄(생활연극)

작전명 : 내년엔 이혼할거야
11월 24일 전격 출동

꼭 가장 먼저
성공하겠어!

난 자신이 없는걸,,,”

안되면,,
그냥 확!!

좋아쥬..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다들 모여!!



코드네임 : 미두나



코드네임 : 미영서



코드네임 : 열티



코드네임 : 혜원경



이혼은 못했지만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 바투(천아트·토탈 공예)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 ‘바투’다. 바투 회원은 많지 않지만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직물 소재나 기타 반제에 다양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넣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천아트를 기본으로 활동하고 있다. 때때로 민화나 아크릴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비즈공예를 하는 날도 있다. 틀에 박힌 활동보다 다양하게 변주되는 활동을 이어가는 동호회다.

□ O's club(영어동호회)

대부분 동호회들이 취미생활을 기반으로 꾸려진다. 오스클럽은 영어 공부가 취미인 왕언니들의 모임이다. 영어를 못해도 번역기가 다 도와주는 세상이라지만 내 입으로 한마디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회원들은 오늘도 열공 중이다. 단어를 외웠다가도 일어나면서 까먹고 뒤돌아서면서 까먹는 재미에 또 다시 외운다며 박장대소하신다. 유쾌한 왕언니들의 쉬엄쉬엄 공부를 응원한다.

□ 어울림(우리춤동호회)



드디어 어울림 회원들의 활동이 기지개를 켜다. 그간 코로나 여파로 밥 먹듯이 다니던 공연봉사 활동을 못해서 갑갑해 하셨는데 올라부터 사회복지시설 공연봉사 활동을 재개했다고 반가운 소식 들려주신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시간 짹 짹 춤연습을 한다. 그러니 노익장의 발끝은

가볍고 손끝은 뽀뽀 난다. 어울림 한옥마을에서 열린 문화재 야행과 전주시 평생학습한마당 동호회열전에도 참여해서 갈고 닦은 솜씨를 아낌없이 뽐냈다.

“한옥마을서 퍼레이드가 행진인가 뭐신가, 그거 따라가니라고 다리는 아팠는데
우리 봐주는 구경꾼들 많으니까 참 좋대.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어. 우리도 참 좋은 구경했네.”

□ 코스모스(아코디언동호회)

아코디언동호회는 지난 11월 마을잔치 무대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코스모스 회원들은 무게도 만만치 않은 아코디언을 메고 매번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으니(우리 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터. 동호회 활동 기간이 오래될수록 회원들의 연령은 높아지니 활동을 쉬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의논 끝에 활동을 정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활동을 공연으로 장식해주신 멋진 회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우리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센터에서 동호회 활동은 접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있으면 언제든 올게요. 꼭 불러주세요.”

□ 쿵치타치(드럼동호회)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면 쿵쿵치치~두구두구~ 소리로 시작을 알리는 드럼동호회. 멋지게 비트를 치는 상상을 하며 온 회원들이 처음엔 똑딱이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어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감각기관이 총동원되는 신체활동이 처음부터 쉬울리 없다. 하지만 옆에서 다른 회원이 시원하게 드럼 치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드럼에 입문하고 싶은데 편한 분위기면 좋겠다 싶을 땐 진북생활문화센터 드럼동호회가 딱이다.

□ 황산고전연구회

고전연구회라니 어려운 공부하는 모임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제는 잘 쓰지않는 한자 빼곡한 책들을 펼쳐놓고 있으니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자도 익히고 사자성어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즐겁게 공부한다.



□ 이수(독서동호회)



아무리 게을러져도 책은 꼭 읽겠다는 굳은 의지로 굴러가는 동호회다. 제대로된 발제도 없어 마냥 느슨해 보이지만 느슨함은 서로 솔직하게 나누는 감상으로 충분히 조여지고 풍성해진다. 오히려 느슨함 덕분에 동호회가 오래 유지되는 것 같다고. 그래도 서로 어떻게든 독려하며 함께 읽고 나날이 깊어지는 중이다.

□ 소리(사물놀이 동호회)



소리풍물 동호회는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장구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작년부터 우리 센터에 등지를 틀고 활동을 시작했다. 회장님의 추임새에 맞춰 장구장단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지는데 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맛이 그럴싸하다.

“어느 장단이 가장 재밌어요?” 물었더니 “아무 장단이든 장구가 잘 쳐지는 날이면 재밌고 잘 안쳐지면 재미가 덜하지.” 라고 올해 78세 회원이 말씀하신다. 소리동호회는 풍물놀이보다는 사물놀이에 가까운 동호회다. 주로 장구장단 중심으로 연습을 하고 공연에 따라 징, 팽과리, 북이 합세한다. 틈틈이 지역의 크고작은 무대에 참여하면서 기량을 키워가고 있다. 기본 가락만 익혔다면 함께 하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

□ 소리울(고고장구)

4분의 4박자 빠른 템포의 반주에 맞춰 장구를 두드리며 화려한 율동을 함께 선보이는 고고장구는 특유의 신명으로 눈을 땔수가 없게 만든다. 올해 우리 센터에서 동호회 활동을 한 소리울은 가을 내내 수시로 공연을 다니느라 바빴다고 한다. 그럼에도 센터에서 열린 마을잔치에 기꺼이 참여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잔치의 흥을 돋우니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질 수 밖에. 소리울 회원들의 활동에 꽃길만 펼쳐지길 응원한다.



□ 비녀회(문인화)

화선지에 글과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 또한 정갈하게 가다듬어지고 비워졌다 채워지기를 반복한다는 문인화 동호회원들의 말씀이 인상적이다. 직장인이자 주부들로 구성되어 토요일에 활동하다보니 매번 출석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회원 중에서 생활문화로 번지는 묵향전에서 입선을 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회원들의 사정이 녹록치않아 12월부터 잠시 활동을 쉬어가기로 했는데 다시 만날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줌마렐레 & 우쿨로하모니 (우쿨렐레동호회)

4월에 시작한 줌마렐레, 5월에 시작한 우쿨로하모니. 2개의 우쿨렐레동호회가 11월까지 활동을 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우쿨렐레는 보기에 도 귀엽고 소리도 사랑스럽다. 연주하는 모습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연주 연습을 통해 친목도 도모하고 공연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는데 맘처럼 쉽게 안 되네요. 갈 길이 멀어요.” 줌마렐레 회장님의 말이다. 첫술에 배부르기 쉽지 않다. 꾸준히 하면 길은 열리는 법이니 내년을 기약하며 힘내시라!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 수채화(금요일반/토요일반)

수채화 프로그램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스테디셀러다.

시작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초보자도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장르다. 우리 센터에서는 금요일반과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반이 운영되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수채화반 수강생들의 작품으로 꾸민 삼색전이 열린다.



□ 캘리그래피

우리 센터에서 진행되는 캘리그래피 수업은 붓과 먹물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유연하고 동적인 선, 먹글씨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친 듯, 스민 듯한 효과가 아주 매력적이다.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서체를 익히고 자신만의 느낌을 실어 변용하는 과정까지 진행한다. 시시때때로 캘리그래피 기법을 사용한 공예품(부채, 한지등, 수제도장) 만들기도 하고 있어서 수강생이 지루할 틈이 없다. 원하는 수강생은 자격증 과정에 도전할 수 있다.



□ 프랑스자수

프랑스자수는 실과 바늘, 천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해서 어디서든 손으로 꿈지락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취미활동이다. 센터에서는 혼자 하기 어려운 기법을 배우고 함께 모여 소품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다.

“바늘에 실 끼울 때 이렇게 하면 실 끝에 침 묻히지 않아도 끼울 수 있어요. 참 쉽죠잉~”

“실은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면 천이 훌쳐서 짜글짜글 울어요. 손에 힘을 요만큼 빼시고~ 그렇죠, 그렇죠.”

실을 꿰는 법부터 장력, 매듭 뒤처리, 자수 기법마다 소소하게 숨어있는 꿀팁을 마구마구 가르쳐준다. 기본기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독학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다.

“같이 하니깐 쉽고 좋다.”

같은 기법이라도 저마다의 손맛이 달라서 다 제각각이다. 어깨가 아프고 눈도 침침하다면서도 손에 쥔 바늘은 실 새 없이 수틀 위를 달린다.



□ 기타교실(수요일반/목요일반)

기타교실 목요일반은 1월에 초급과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고수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연습실 밖으로 흘러나오는 기타 선율이 제법 여유롭다. 코드도 모른다, 손가락이 굳었다, 나이먹어서 진도 못따라 간다 했던 분들이 멋지게 각 잡고 기타줄을 튕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회원님들 실력이 일취월장 하신 걸 보면 남몰래 틈틈이 연습을,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수요일반은 여름부터 중급과정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 요가

요가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같이 수련하는 활동이다. 센터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수련하기 딱 좋은 시간이다. 롤링,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10명 내외의 인원로 수업이 이루어져서 번잡하지 않은 것이 아주 큰 매력이다. 센터에서 15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 덕분인지 요가반은 분위기마저 다정하다.



□ 하모니카

“제가 입으로 부는 악기는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모니카에 반해서 주변에 하모니카 전파자가 되었던라고요.” (지숙)

“차 안에 항상 하모니카가 있어요. 늘 갖고 다니죠. 언제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게.

신랑이 운전할 때도 옆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종종 하는데 잘 들어주니 알콩달콩 재미도 있고요.” (한도연)

“제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하게 되었어요. 올여름에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친구와 함께 하모니카 연주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정말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최순덕)

“제가 여기 등록하기 전에 강사님 나이도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젊은 선생님이면 어쩐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편하게 잘 가르쳐주시니까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싶은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황선희)

“우리 이번주 목요일에는 치명자산에 있는 평화의전당에 식전행사 무대 공연도 나갑니다.

수강생들도 저도 너무 즐겁게 준비하고 있어요.” (강사 전설)



□ 이모티콘 만들기

이모티콘 생태계는 무한 확장 중이다. 이모티콘 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모티콘 작가’라는 직업이 낱설지 않아졌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현대판 상형문자로 불리는 ‘이모티콘’ 창작 교육과정을 여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대충 말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만들어서 요모조모 쓸모있게 써볼 수 있는 길잡이 프로그램으로 이모티콘 이론+제작+심사제안까지 8주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학생과 직장인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을 이용해 진행되었고 모집공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다. 강사는 이모티콘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범고래(작가명)님이 함께 했다. 올해는 2기까지 운영되었고 내년에도 8주과정, 기수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2기 수강생 모집
이모티콘 만들기
[기본+심화] 이론 + 제작 + 심사 제안
 이모티콘의 이해, 활용 있는 이모티콘 &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 커리어 심사 제안까지
 • 교육과정, 8회 (2개월 수강료 8만원)
 • 강사, 이모티콘 작가 범고래
 • 개인준비물(필수), 태블릿PC 또는 노트북+타블렛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마음, 손, 상상력, 표현을 하나로, 3월경에 시작합니다.
 2023.9.4~10.30.
 매주 월 19:00-20:30
 이모티콘 길잡이
 수강신청문의
 진북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3-275-0186
 + #진북생활문화센터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2층 ☎ #
 사립원 디자인센터 디자인: 범고래(작가명) ©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 펜화(기초과정(수/목), 일반과정(수/목))

문 밖에 나서면 눈길 닿는 곳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이쁜 봄이 한창일 때 펜화 수업이 시작되었다. 선긋기나 사물묘사와 같은 기본기를 먼저 다진 후에 투시기법을 적용한 집과 건물, 거리풍경을 그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펜화를 개설할 때는 1반이었는데 지금은 과정을 나누어 4개반이 운영중이다. 종종 센터 밖 수업이 진행되는데 수강생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다. 내년에는 심화과정도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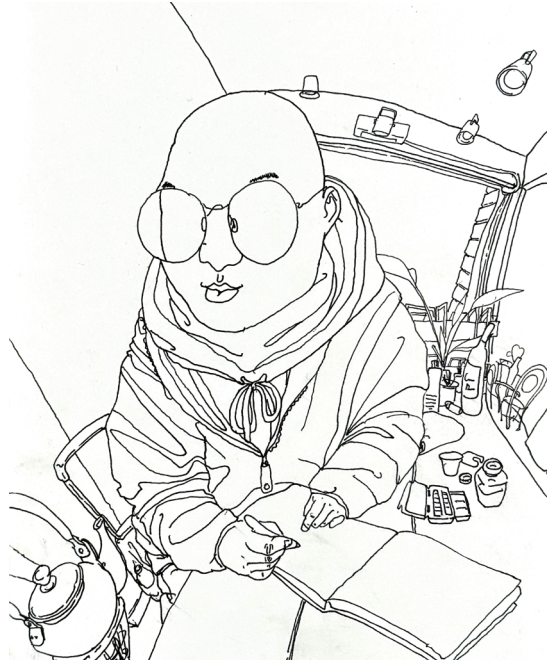
“그림이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에게 진 빛을 백 년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것 같다.”

어떤 이가 있다. 나는 그를 서른이 되기 전에 만났는데, 그는 내가 혼자일 때 말을 걸고 위로가 되어 주었다. 심심할 때마다 그를 찾았고, 그는 늘 거기에 있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소중한 인연들과 나를 이어 주었다. 이뿐인가? 나는 그를 통해 어느새 세상을 다시 보고 그와 함께 여행 중이며, 그 기록들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자 이력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그림이다. 그림이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에게 진 빛을 백 년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것 같다.

배워서 남 주는 일 고맙게도 그림은 내게 일도 주었다.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펜화를 가르치게 된 것. 2년 전 ‘소소’에서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박진이 실장님께서 감사 제의를 해주셨었다. 당시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작년 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을 때는 강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23년 올해 5월부터 같은 곳에서 또 한 번의 전시와 함께 펜화 강의를 시작했다.

비전공자이고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기간은 길지 않은 나이에 매주 강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고 연구 작을 그린다. 그 시간은 언제나 강의 시간보다 몇 배 더 길고 어렵지만, 그 또한 지금 내게는 큰 기쁨이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렇다 할 방법과 생각을 두지 않고 그려오던 것을 수강생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 하니 그 과정에서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함을 느낀다. 배워서 남 주면서 오히려 내가 더 받고 있으니 성실히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계속 함께 그리기 위해 5월부터 시작한 펜화반 선생님들의 수준이 그 시작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하다. 이제 다음을 물으시고 다른 재료와 기법에 큰 흥미를 보이셔서 나 또한 분주한 마음으로 2024년의 강의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수강생분들이 그림을 놓지 않고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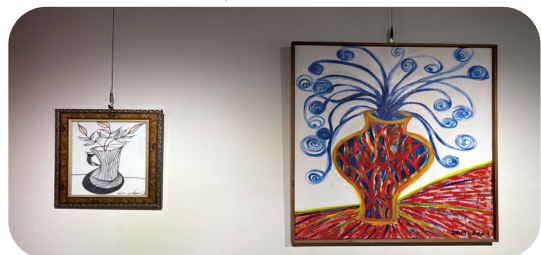


엇보다도 재미가 중요하다. 손끝에서 펼쳐지는 그 예쁜 것들을 볼 때의 감격과 또 반복되는 연습의 끝에 그다음 단계로 발돋움했을 때의 성취감, 이 두 재미를 같이 계속 안겨 드리기 위해 매일 생각하고 생각한다.

도시 풍경을 그리거나 어반스케치를 하면서 그려 넣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는 역시 단연코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 드로잉 수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인물화는 그로서 하나의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도 풍부하고 어렵지만, 심미적 보상 역시 크다. 사용하는 재료의 폭을 넓히는 것 또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마카를 이용한 채색 수업도 구상 중이다. 쉽지 않지만 또 다른 재료를 만나고 서로의 얼굴을 그림으로 담으며 웃는 수강생분들을 생각하면 벌써 설렌다. 수강생 분들에게,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래도록 그림으로 만나고 싶다.

오영석(펜화 강사)

천재윤 | 살아 숨 쉬는 것



1월 2일 ~ 1월 14일

진윤숙 |
자연의 몸짓과 천사 소리



1월 16일 ~ 2월 4일

강귀이, 김동파, 김기순, 김혜연, 김구영, 최혜연 | 꽃그림



3월 6일 ~ 3월 11일

강귀이 | 소심한 날개짓



3월 13일 ~ 3월 18일

전민주 | 봄 꽃



3월 22일 ~ 4월 4일

강영혜 | 개인전



5월 1일 ~ 5월 8일

오영석 | 선



5월 8일 ~ 5월 31일

선우 동호회 | 아름다운 동행



6월 1일 ~ 6월 17일

장정숙 | 개인전



6월 20일 ~ 6월 30일

아크릴화 회원 |
제2회 휘랑전 (밝게 빛나다)



7월 3일 ~ 7월 15일

감물 | 그리움 더한 삶



7월 18일 ~ 7월 29일

강석홍 | 그곳에 머물다



7월 29일 ~ 8월 5일

2023 생활문화로 번지는 목향 in 진북 참여자 작품 전시회



8월 29일 ~ 9월 2일

강정희 | 재활용-탄소중립 생활실천 展



9월 4일 ~ 9월 16일

이자연 |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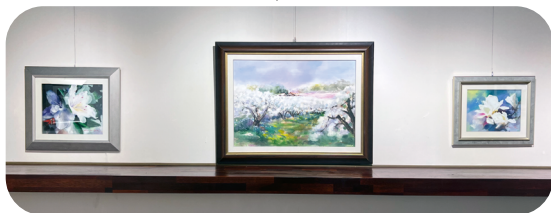
9월 18일 ~ 9월 27일

색 오름회 | 제18회 色 오름전



10월 4일 ~ 10월 21일

이오순 |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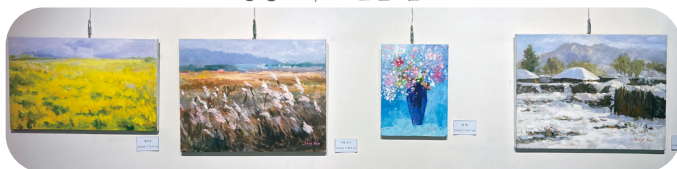
10월 23일 ~ 10월 28일

최규중 | 자연을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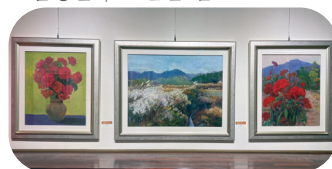
10월 30일 ~ 11월 4일

양송희 | 자연을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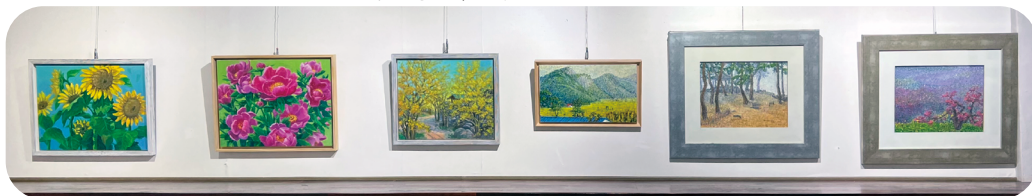
11월 6일 ~ 11월 11일

김경순 | 자연을 품고 그리다



11월 13일 ~ 11월 20일

전북사생회 | 아름다운 全北의 自然



11월 20일 ~ 12월 2일

수채화 회원 단체전 | 삼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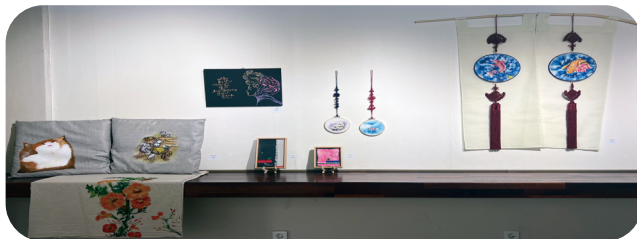
12월 4일 ~ 12월 16일

강금자 | 개인전



12월 18일 ~ 12월 22일

바투 | 회원전



12월 23일 ~ 12월 30일



& 센터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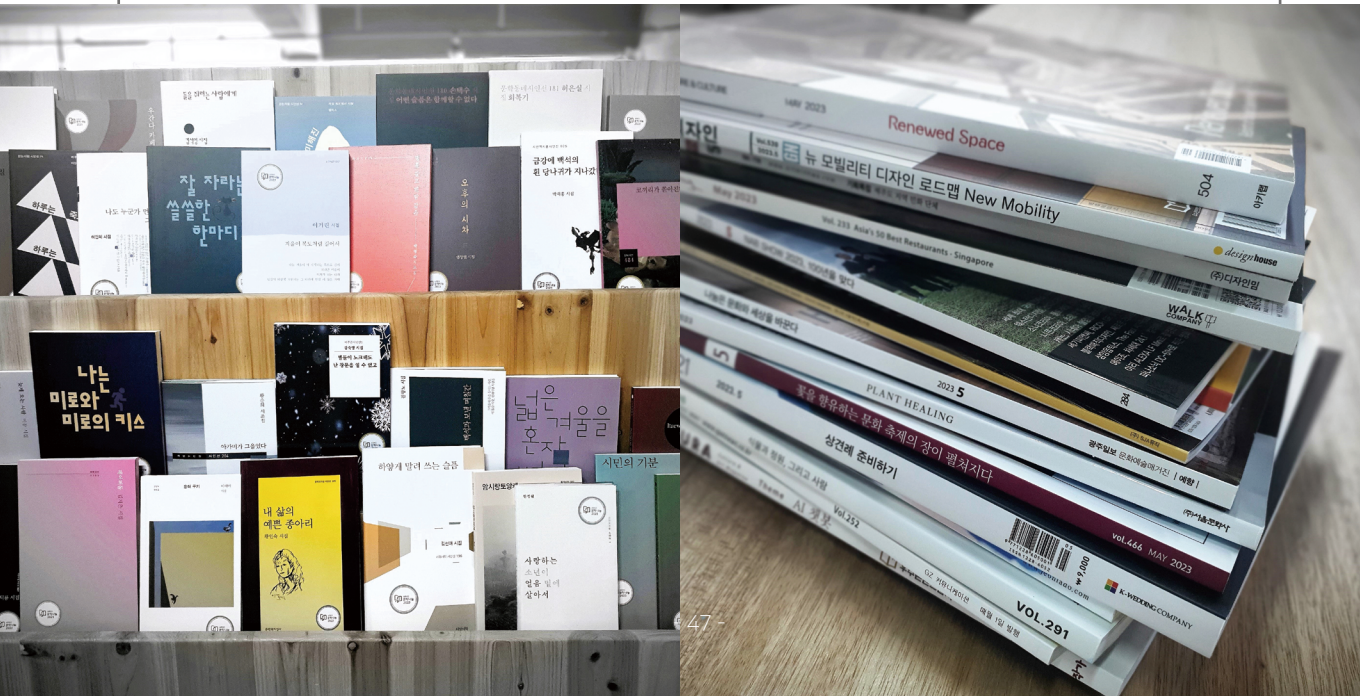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우리 센터는 매년 효자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고 노인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효자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활동을 시설에 배치해주고 시설은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을 제공한다. 올해도 4명의 어르신인 째게는 한달, 길게는 11개월 동안 매월 10회정도 정기적으로 출근하셔서 환경돌봄이 활동을 해주셨다. 어르신들의 활동 덕분에 센터는 오늘도 환하게 안녕하다.

□ 우수콘텐츠잡지 & 문학나눔

진북생활문화센터는 매년 우수콘텐츠 잡지 배포처와 문학나눔 도서 배포처에 지원해서 다양한 잡지와 도서를 보급받아 비치하고 있다. 매달 신청한 20여종의 잡지가 도착하고 연간 200여권의 문학나눔 도서가 서가에 비치된다. 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자리에 문학나눔 시집 책꽂이가 있고 마주보는 자리에 잡지책꽂이가 있으니 맘껏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오래된 잡지는 무료나눔도 한다.



언론 속 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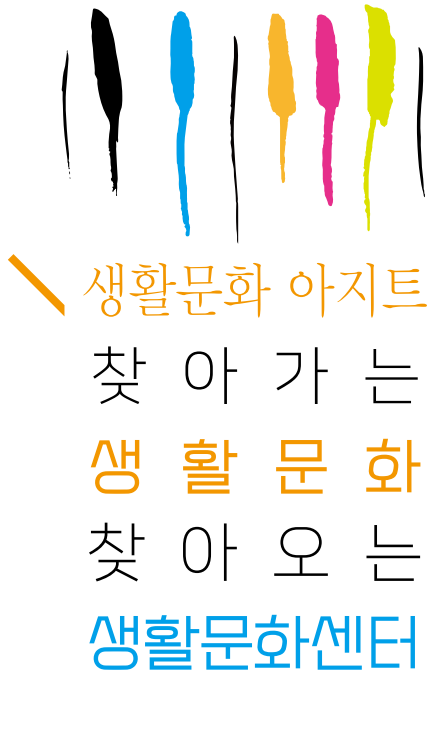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진북생활문화센터 소개



• 설립목적

전주 원도심과 부도심 지역 시민들의 생활문화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연 혁

2000년 4월 20일 진북문화의집 개관
(전주시 1호 문화의집)

2015년 9월 1일 생활문화센터 재개관

2021년 1월 1일 진북생활문화센터 전환

•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 활동권역

전주시 및 진북·덕진·팔복권역, 원도심 일부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고, 자발적 동호회의 활동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문화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상·인문·나눔 바탕의 문화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 기관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민문화 활동 플랫폼으로써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문화의 무한한 생명력 확산을 꿈꿉니다.

비전

생활 속에 자리한 문턱 없는 문화공간 진북생활문화센터

목표

생활문화 아지트 조성 : 찾아가는 생활문화, 찾아오는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침

교육분야

생활문화 · 예술 능력 향상

동호회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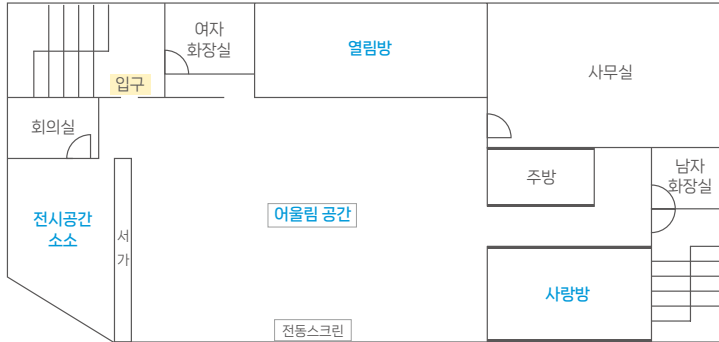
자발적 시민 모임 활성화

기획 분야

문화의 사회적 활동 전개

진북생활문화센터 시설 안내 I

2층 주민 자유훈 공간



- **어울림** : 마주침 공간. 정형화되지 않아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 행사 및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전시공간 소소** : 전주시민, 회원, 생활문화 작가, 지역 예술인의 작품 전시 공간



- **열림방** : 생활문화 아지트 겸 소모임 프로그램 공간



- **사랑방** : 생활문화 아지트 공간 겸 독서 공간



진북생활문화센터 시설 안내 II

3층 회원 전용 공간



- **반올림** : 악기 연주 및 동적(요가, 무용, 연극 등) 프로그램 활동 공간



- **삼공일** : 미술 관련 프로그램 활동 공간



- **삼공이** : 중규모 프로그램 활동 공간



- **삼공삼** : 중규모 프로그램 활동 공간



- **삼공오** : 소규모 프로그램 활동 공간



진북생활문화센터 이용안내

-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치된 도서는 진북생활문화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



교육프로그램 신청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 계획서 및 회원 명단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대관 신청

대관 가능 일정 확인 후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구분	기준	금액(원)	사용기준
회의·모임 행사	1회	20,000	·기본 이용시간 : 4시간 ·단위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기본 이용 시간 초과 시, 매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어울림과 반올림 공간 이용 시에는 별도 협의

2024년 진북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 **문화·예술 교육 분야** 전주시민의 생활문화·기초예술 능력 향상

4가지 장르(건강·댄스 / 미술·취미 / 음악·악기 / 지역·인문)로 분류하여

기초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강좌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 생활문화동호회로 활동 유도

| **동호회 활동 지원 분야** 자발적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모임 지원 및 활성화

‘동호회 활동하기 좋은 문화센터’ 표방,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과 신규 동아리 육성 지원, 친목 모임 이상으로 견인 → 진북생활문화센터 기획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 시민 활동 활성화 지원

| **기획 프로그램** 특성화사업, 공간지원, 공모사업, 네트워크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일상·인문·나눔 바탕의 생활문화 활동 실천

① 특성화사업

주민기획단 양성과 지역 생활문화 활동 확산. 생활문화 매거진 ‘짓다’ 발간

② 공간지원사업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로 시민들의 생활문화 아지트 공간

→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공간 지원과 주민 자율 문화 사랑방 운영

③ 공모사업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생활문화동호회 프로그램 등 생활문화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

④ 네트워크사업

원도심과 부도심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시설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활동

|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전문 예술인의 활동이 아닌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다양한

교류 활동지원을 통한 전주시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와 건강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진북생활문화센터

진북생활문화센터

진북생활문화센터
우리 동네 아지트

편집후기

진북 생활문화센터다운 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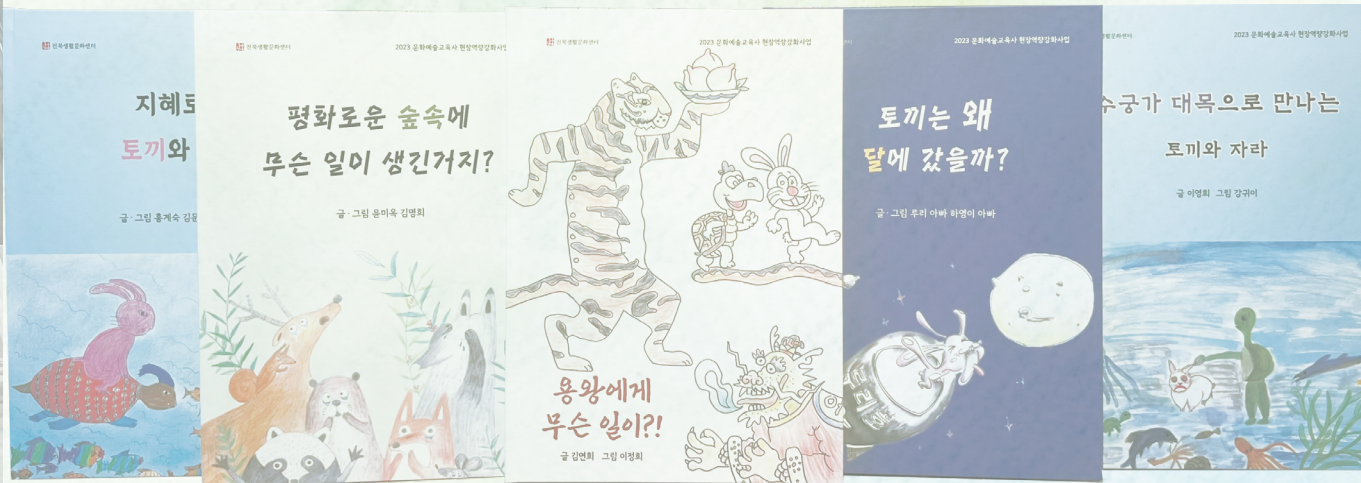
편집회의를 하면서 과연 진북다운 진북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을 전해본다.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작은 물줄기는 하나의 강물을 이루고
그강물 또한 굽이굽이 흘러 커다란 바다를 이루었다.

지금의 바다는 나뭇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노력을 하였을까?
모든 게 그렇다. 진북 생활문화센터의 현재의 모습도 처음부터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

여러 사람의 재능과 끊임없는 각고의 노력으로
진북만의 자신의 색을 담아내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렇기에 볼거리가 풍성하고 각종 동아리 체험과 교육 활동,
기획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현장에는 생동감이 항상 넘친다.

앞으로도 진북 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친밀감 있는 공간이 되리라 확신하며 더욱 발전되리라 기원해본다.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짓다**

발 행 일 2023년 12월 26일

발 행 처 진북생활문화센터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전 화 063-275-0186

홈페이지 <http://www.jeonjuculture.or.kr/jinbuk>

발 행 인 한천수

편집위원 (위원장)이정희, 신진철, 오영석, (간사)이희찬

사 무 국 박진이, 하형래, 박수빈

디 자 인 LK디자인광고

2023 진북생활문화센터 “짓다”는 전주시의 보조를 받아 진북생활문화센터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